삼청동에는 젊은 불교가 있다

복합불교문화공간 '스페이스 붓-아트' 6월 3일 개관

젊은이들의 문화거리로 떠오른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복합불교문화공간이 마련됐다. 6월 3일 문을 여는 '스페이스 붓-아트'가 젊은이들에게 불교문화를 자연스럽게 전하는 새로운 전당으로 자리매김 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스페이스 붓-아트'(원장 박경귀)는 불교회화연구실 '스튜디오 선불화'와 복합문화공간 '스페이스 선+' 불교예술 교육 및 행사지원을 전담하는 '아카데미 선그림'으로 기능을 세분해 운영된다.

'스튜디오 선불화'는 박경귀 원장이 1989년부터 운영해 온 '선불화공방'을 개방한 것으로 불화연구와 창작 공간이다. '선불화공방'은 고려불화의 계승과 발전을 기치로 새로운 개념의 현대불화 창작에 몰두하며 수원사 '관음도' 장수 성관사 '아미타극락변상도' 등의 작품을 통해 불화의 현대화에 새로운 '화두'를 던져 왔다.

'아카데미 선그림'은 불화를 포함한 불교예술의 사회적 확대를 목표로 각종 교육과 행사를 기획 운영할 계획이다. 어린이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통미술 체험 강좌와 삼청동 일대의 다양한 공방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모듬강좌, 미술교사나 불교미술교육을 희망하는 개인과 단체들을 위한 교육지원, 각종 축제와 문화행사의 불교미술 체험부스 지원 등의 활동을 할 계획이다.

'스페이스 선+'은 복합문화공간으로 불교미술전시, 소형 세미나, 독립영화 상영, 시낭송회, 음악공연 등을 위해 무료로 공간을 제공해 불교문화의 저변확대를 꾀할 방침이다. 이같은 활동을 통해 작가와 독자의 자연스러운 대화공간으로 활성화 시켜 나가겠다는 의도다. 뿐만 아니라 불교관련 각종 온라인 카페의 모임 공간으로도 개방할 계획이다.

'스페이스 붓-아트' 박경귀 원장은 13세에 불화작업에 입문해 전통도제식 방법으로 불화수업을 받았다. 동국대학교에서 불교미술을 전공한 박 원장은 "불화가 경배의 대상으로서 사찰장엄이라는 기능을 충실히 해왔지만 이제 보다 현대적인 관점에서 대중과 함께 호흡할 때가 됐다"며 "불화를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불교예술이 자유롭게 호환되고 젊은이들이 그 기류에 동참해 문화예술로서의 불교를 체험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다. '스페이스 붓-아트'는 박 원장과 양순복(문화재수리기술자) 마성우(불화가) 김수정(불화가) 작가 등이 역할을 나누어 운영하게 된다.

한편 '스페이스 붓-아트'는 6월 3일 개관을 기념해 '나눔과 공생전'을 연다. 이 기념전에는 김창균 동국대 교수를 비롯 신주호 김석곤 고승희 이수예 권지은 등의 불화가들의 초청 작품과 회원들의 작품들이 전시된다. 무엇보다 이 기념전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불교계의 대표적인 국제구호단체인 '로터스 월드'에 기부된다. 전시회가 시작되는 6월 3일 오후 5시에는 '스페이스 붓-아트'의 개관 및 기념전을 축하하는 축하공연도 열린다. (02)733-0730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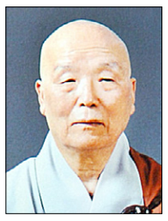


젊은이들의 문화 공간 종로구 삼청동에 마련된 불교복합문화공간 '스페이스 붓-아트'는 부처님 당시 수행자들의 의복인 '분소의'를 이미지화해 지어진 건물에서 다양한 문화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건물 앞에 선 박경귀 원장. 사진=박재완 기자

보배 보다 존귀한 진리 담아 '일필휘지'

보성 스님 선묵집 '범일묵적' 나와





"모든 보배 구슬보다 부처님 말씀이 존귀하고(輕萬璧以重金言) 온갖 보배 보다 진리의 경전이 존귀하다(棄千寶二尊寶偈)."

승보종찰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보성 스님(사진)의 선(禪)사상이 담긴 붓글씨와 그림, 낙관 등을 수록한 선묵집(禪墨輯)이 나왔다.

송광사(주지 영조)는 최근 보성 스님이 사부대중에게 선의 종지(宗旨)를 전하기 위해 전해준 휘호 100여 점을 모아 <범일묵적(梵日墨跡)>을 간행했다. 5월 9일 하안거 결제를 맞아 "머리에 불은 불을 끄듯이 부지런히 정진하라"며 당부했던 보성 스님의 가르침이 문자반야로 거듭나 대중에게 다가온 것.

총 215페이지 분량으로 이뤄진 선묵집은 휘호에 대한 해설과 낙관, 연보 등이 함께 수록돼 있다. 보성 스님의 문도와 송광사 대중들이 동참한 '범일묵적간행위원회'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스님의 휘호를 모아 간행됐다. 간행위원장을 맡은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은 간행사를 통해 "선가(禪家)에서 흔적을 남기기를 꺼리는 것이 풍습이지만 큰스님이 자비심으로 대중을 제도한 자취를 되살리기 위해 선묵집을 발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스님의 만류를 묵빈(默賓)하며 인연 대중에게 흩어진 묵적들을 수습해 1년 여 동안 준비 끝에 서책으로 묶어 세상에 내놓게 됐다"고 발간배경을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도 "종사께서는 교외별전(敎外別傳)의 종지 선양은 물론 선적(禪寂)의 여가에 묵필로써 불교의 묘지를 지면에 농현(弄現)하신 필적이 단아하고 해직(楷直)한 자획은 사람들의 심성을 맑혀주는 지청수가 된다"고 축사했다.

김성우 기자

도전정신 살아 숨쉬는 찻그릇 선보여

양계승 도예가 '찻그릇전' 6월 3~9일 서울 인사아트 6층

금산 양계승(51) 도예가의 '찻그릇전'이 6월 3~9일 서울 인사아트 6층에서 열린다.

평소 "실험하지 않는 가마는 죽은 가마다"란 말을 입버릇 처럼 해온 양 작가는 찻그릇에 대한 애정과 실험정신을 담은 50여 작품을 선보인다. 연꽃문 분청 다기, 백철 균열문 다관과 받침, 즐문 다합, 매화피 다완 등의 작품들은 하나같이 토속적이면서도 독창적인 예술미를 선보인다.

"흙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정신으로 창작에 몰두해 온 양 작가는 황토를 이용해 서민풍의 도자기를 만들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유약을 개발하는 열정을 보여 왔다. 양 작가는 "저는 기교를 버리고 작의를 버리고 쉬엄쉬엄 일하지만 아직 무욕(無慾)이라는 욕심이 남아 있다"며 "만들고자 해서 만든 그릇보다, 저절로 만들어지는 그릇을 굽고자 한다. 흙을 밟고 두드리고 빚는 것이 아니라 흙속에 묻혀 잠자던 그릇을 깨워 세상으로 불러내겠다"고 말했다.

(02)736-1020

김성우 기자

홍성란의 시조 아카데미

만해축전·백담사 체험도 OK

시조도 공부하고 만해축전 참가는 물론 백담사 산사체험까지 할 수 있는 문학교실이 열린다.

만해사상실천선양회(총재 지관) 유심아카데미는 6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서울 강남사무소에서 '홍성란의 시조아카데미'를 연다.

6월 1일 '시조의 이해와 창작법'을 주제로 한 공개강좌로 시작되는 이번 여름 학기는 오는 8월 만해축전에 동참할 수 있으며 백담사 템플스테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참가인원은 선착순 20명. (02)739-5781

김성우 기자

원담 스님이 남긴 선시, 김대열 그림 만나

원담스님 추모 1주기 선시화전

"올 때 한 물건도 없이 왔고(來無一物來)/ 갈 때 한 물건도 없이 가는 것이로다(去無一物去) 가고 오는 것이 본래 일이 없어(去來本無事) 청산과 풀은 스스로 푸름이로다(靑山草自靑)."(원담 스님 열반게)

지난해 3월 입적한 前 수덕사 방장 원담(1926~2008) 선사 선시(禪詩)가 한국화로 거듭났다.

덕숭총림 수덕사 서울 포교당 대륜사(주지 일연)는 6월 3~9일 서울 인사동 목인갤러리에서 '원담 스님 추모1주기 기념 선시화전'을 연다. 원담 스님이 남긴 가르침과 선시 중 일반인들이 생활 속에서 교훈으로 삼을 만한 것 20여 점을 골라 김대열 동국대 한국화과 교수가 그림으로 옮겼다.

이번 전시에 대해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은 "선사의 깊은 선지(禪旨)는 물상을 떠난 겁외(劫外: 시간 밖)의 소식이라 언설로 표현할 수 없지만 (일연 스님의) 선사를 추모하는 정이 지극하여 선시화로서 선사를 유추(遺追)하려는 노력이 가상하다"고 치하했다.

수덕사 주지 옹산 스님은 "스님의 게송이 초여름 열기를 식혀주는 한줄기 감로수라면, 김대열 교수의 붓놀림은 소나기 곁에 피어오르는 물안개"라고 축하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얻어지는 모든 수익금은 불교발전을 위한 사회복지기금으로 기부될 예정이다. 기념식은 6월 4일 오후 5시에 열리며, 6일 오후 3시에는 일연 스님의 '일상에서의 생활불교와 기도정진' 법문도 진행된다. (02)722-5055

김성우 기자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열려

조계종, 8월 18~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접수

조계종 총무원(원장 지관)은 한국 전통 불교미술을 계승, 발전시킬 인재육성을 위해 '제24회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을 연다.

조계종이 주최하고 문화관광부, 문화재청 등이 후원하는 불교미술대전에는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응모희망자는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에서 원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품사진과 제작의도가 담긴 작품설명서(포트폴리오)와 함께 8월 18~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접수하면 된다.

1차 포트폴리오 심사와 2차 수상권 작품심사를 통해 대상(1500만원), 최우수상(500만원), 우수상(100만원), 장려상(50만원), 특선, 입선 등을 선정해 오는 10월 7일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시상한다. 수상작은 10월 7~20일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전시된다. (02)2011-1770~5

김성우 기자

신 제 품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



귀의 삼보하옵고, 삼환양초는 사찰에 꼭 필요한 초를
20년 넘게 생산하고 있는 양초전문 기업입니다.
사찰 및 불자님들께서 필요하신
양초 문의시 성실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우창산업(삼환양초)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주문하시면 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복장의식 불량식 소장사 영가용 천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 / 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55,000원
10mm×10mm×12mm 65,000원
12mm×10mm×12mm 85,000원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26×16×16cm 100,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온열뜸기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기발생기
전기용품 안정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안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 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